

담양군, 지류형 지역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기존 20만원서 50만원으로 상향 내년 1월1일부터 31일까지 시행 카드형·모바일 기존 30만원 유지 “건전한 지역 경제 질서 확립 최선”

담양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25년 1월1일부터 31일까지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

향한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은 1월 한 달간 진행되며 카드형(모바일)은 기존 30만원으로 유지된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10%이다.

담양사랑상품권 지류형 구매와 카드 발급 및 충전은 우체국을 제외한 담양 관내 29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한

다. 카드형 상품권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과 충전은 전용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에서 가능하다.

담양사랑상품권 이용 가능 가맹점 현황은 전용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 chak(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내 위치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내 위치 주변 가맹점 또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어려움을 겪는 지

역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구매 한도 상향을 결정했다”며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소득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은 상품권 이용이 제한되며 제한 가맹점 현황은 담양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신재현 기자



반찬 나눔 사회공헌활동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처장 이혜승)는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더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22일 밝혔다.

‘더 따뜻한 겨울나기’는 한국수자원공사 창립 57주년을 기념한 전사적 나눔활동으로 영·섬유역본부에서도 이에 발맞춰 추운 겨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영·섬유역관리처 직원들은 영·섬유역본부 소재지인 광주시에 위치한 인애종합복지관을 찾아 반찬을 직접 포장해 독거노인 등 식사 지원이 필요한 지역 내 소외계층에 배달했다.

이어 19일에는 신애원(아동양육시설)에 방문해 산타클로스가 된 마음으로 선물을 정성스레 포장해 지역 아동들의 행복한 연말을 기원하며 총 140만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이혜승 영·섬유역관리처장도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따뜻함을 나누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광주축산농협, 김장김치 나눔 활동 소외이웃에 150박스 전달

광주축산농협은 김장철을 맞아 ‘2024년도 사랑나눔 실천운동’ 행사를 지난 20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여성 임원 및 대의원, 직원 등 30여명이 직접 김장김치를 버무리고 포장해 각 지점별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이웃들에게 김장김치 150박스를 전달했으며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즉석밥 30박스와 라면 20박스를 전달했다.

김호상 광주축산농협 조합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겨울철을 보낼 이웃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랑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화순군 청소년문화의집, 30일까지

화순군은 오는 30일까지 화순군 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1차 문화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1차 문화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메이킹(Chat GPT·AI), K-POP댄스챌린지, 토요일은 토론이 즐거워(세계사·한국사), 청소년탁구교실, 튼튼 속속 헬스프로그램으로 총 5개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청소년 53명이며 2025년 1월10일부터 4월26일까지 매주 해당 요일에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30일까지 화순군에 거주지를 둔 초중고 또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화순군 청소년문화의집 누리집(http://hwasunyouth.or.kr/) 공지사항에 게재된 양식에 작성하여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minjae990407@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화순군청소년문화의집(061-379-5176)으로 하면 된다.

이선화 가정활력과정은 “청소년들의 행복과 안전에 중점을 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지난 17일 함평군 월야면 지사협 회원들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월야면, 지역아동센터에 선물 보따리 전달

함평군 월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안순영·장수복)가 지난 17일, ‘월야 산타가 떴다!’ 행사를 열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22일 함평군 월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날 산타로 변신, 아이들의 희망 물품인 운동화, 장난감,

패딩 등의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35명의 아이들에게 전달된 이날 선물은 월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십시일반 모금한 재원으로 마련됐다.

장수복 위원장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선물을 주고 싶었다”며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같이 신나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

안순영 월야면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이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광주비아농협,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감사장 수여

직원 교육 고객 자산보호 도움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광주비아농협(조합장 박흥식)이 지난 18일 신종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예방에 기여해 광주광산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장을 받은 광주비아농협 본점 류승은 과장보는 지난 11월 6일 60대 여성 고객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 인출 요청을 받아 금융사기예방을 위해 자금사용처 등의 질문을 이어가던 도중 고객의 행동이 다소 부자연스럽고, 당황한 기색이 보이자 고객을 안심시키며 현재 현금 및 수표 일천만원이상 인출 시 관내 경찰서와 연계해 경찰 입회 후 거래함을 안내하고 경찰출동을 요청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녹음된 통화 내용을 확인해보니 통화자는 검찰정임을 밝히며 1억7000만원 상당의 사기거래에 연루됐으며 해당 고객에게 집을 주었고 이를 의심하는 고객에게는 A카드사 관련이라며 전화번호를 안내했다. 하지만 고객의 핸드폰은 이미 해킹되



광주비아농협이 지난 18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예방에 기여해 광주광산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어 사기범들에게만 연결되는 상태였으며 은행 직원에게는 ‘자동차 구입을 위한 현금 인출’이라고 설명하고 현금 2000만원을 출금하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였다.

신속한 신고와 출동으로 통화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임을 확신하고 거래를 중단시켰으며 류승은 과장보는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하며 고객의 자산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류승은 직원은 “매일 반복되는 상황에도 예의를 두지 않고 금융사기예방장단

표를 받고 경찰협조를 구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이 고객 자산보호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흥식 조합장은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금융사기수법으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더욱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화순군, 지역상권 이용 홍보

화순군은 지난 18일 관내 고인돌 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캠페인은 혼란스러운 시국과 더불어 고물가와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독려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상인과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살리기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장 거리를 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순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고통받는 시기인 만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화순사랑상품권을 월 구매 한도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위한 특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순=김선종 기자